

2026년 6월 말레이시아 관광시장 동향

'26. 6. 30.(화) / 쿠알라룸푸르지사

○ 우정국, 말레이시아 방문의해 기념 특별 우표 컬렉션 발행

- 말레이시아 우정국(Pos Malaysia)은 말레이시아의 문화적 다양성과 상징적인 관광지를 조명하는 말레이시아 방문의해 캠페인 기념 특별 우표를 발행함
- 우정국은 이는 단순한 수집품이 아니라, 말레이시아의 이야기를 세계와 공유하는 의미 있는 방법이며, 각 디자인은 말레이시아의 유산, 문화, 그리고 독특한 경험을 반영한다고 밝힘
- 해당 우표는 각 주를 대표하는 유명 랜드마크와 문화 아이콘을 담고 있으며, 방문의해 캠페인 마스코트인 Wira와 Manja가 등장함. 이들은 Malayan Sun Bear를 모티브로 제작됐으며, 말레이시아의 생물다양성과 자연보호 노력을 상징
- 전체 세트의 가격은 62.6링깃(약 23,500원)이며, 또한 두 가지 엽서 디자인도 판매되는데 가격은 각각 2.5링깃(약 950원)임

○ 말레이시아 정부, 관광 비자 이용한 사업 운영 사례에 강력 조치 경고

- 내무부장관은 최근 내각 회의에서 총리가 외국인들이 유효한 허가 없이 관광 비자(Social Visit Pass, 무비자)를 이용해 사업을 운영하는 외국인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발표
- 총리는 추가적인 위원회나 조정 기구도 필요 없고 기존의 법률과 기관만으로도 충분히 조치가 가능하다는 입장
- 내무부장관은 당국이 무비자로 말레이시아에 입국한 외국인들이 미용실, 식당, 인테리어 디자인 서비스, 가구 거래 사업 등을 운영하는 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힘 (Social Visit Pass를 소지한 외국인은 적절한 허가 없이 근로하거나 사업 활동을 할 수 없음)
- 내무부는 이는 합법적으로 운영되는 현지 업체와의 불공정 경쟁을 유발한다며, 단속 강화를 위해 내무부, 이민국, 경찰, 주택 및 지방정부부, 국내무역 및 생활비부, 재무부, 지방자치단체 등이 참여하는 다기관 협력 방식을 가동

○ 쿠알라룸푸르국제공항, 아시아-유럽 연결성 강화로 지역 항공 허브공항 위상 강화 중

- 말레이시아항공공사(MAHB)의 대주주인 국부펀드 카자나는 2025년 사업보고서에 서 쿠알라룸푸르국제공항(KLIA)이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대체 환승 허브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고 밝힘
- KLIA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MAHB는 항공사와의 협력 강화, 신규 노선 개발, 해외 항공사와의 파트너십 확대를 통해 새로운 연결성을 확보하고 감소한 항공 운항 수요를 대체하는 데 주력
- 또한 MAHB가 재생에너지 도입을 통한 지속가능성 프로젝트를 가속화하고 있으며, 업계 관계자들과 협력해 말레이시아의 항공 및 관광 생태계를 강화하고 있다며 대표적으로 KLIA는 이미 중국의 충칭항공과 알제리 국영 항공사 알제리항공을 통해 새로운 항공 연결성을 확보했으며, 이를 통해 중국 및 아프리카와의 연결망을 확대했다고 발표
- 카자나는 2025년 초 완료된 MAHB의 민영화가 말레이시아 공항 산업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었다고 평가하며, 2025년 말레이시아 공항들은 총 1억 440만 명의 승객을 처리했고, KLIA는 글로벌 공항 평가 지표에서도 순위를 끌어올렸다고 밝힘

○ 말레이시아컨벤션뷰로, 중앙아시아 지역 대상 마케팅 행사 개최

- 말레이시아컨벤션뷰로(MyCEB)은 말레이시아관광청 알마티지사 및 주 우즈베키스탄 말레이시아 대사관의 지원을 받아,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에서 처음으로 세일즈콜 프로그램 및 비즈니스 이벤트 세미나를 성공적으로 개최(6.2. 카자흐스탄 알마티 / 6.4.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 이는 MyCEB이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에서 개최한 최초의 비즈니스 이벤트 홍보 활동으로, 신흥 국제 시장에서 말레이시아의 입지를 확대하고, 아시아를 대표하는 비즈니스 이벤트 개최지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
- 이번 행사를 위해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의 관광·기업·MICE 업계 관계자를 초청하였으며, MyCEB는 이번 행사가 말레이시아를 선호되는 비즈니스 이벤트 목적지로 소개하는 전용 플랫폼 역할을 했다고 설명
- 이번 행사에서 국제회의 개최, 국제 컨퍼런스, 전시회, 기업 인센티브 관광 프로그램, 그 외 분야에서의 말레이시아의 경쟁력을 소개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세계 수준의 인프라, 현대적인 호텔·숙박 산업, 광범위한 국제 항공 연결망, 경쟁력 있는 비용, 정부의 강력한 지원 정책 등
- 특히 알마티 행사에서는 말레이시아관광청이 별도로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해 말레이시아의 관광 상품도 소개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레저 관광, 럭셔리 관광, 가족

관광, 비즈니스 관광이었고, 특히 중국, 중앙아시아, 유럽 등에서 빠르게 성장하는 트렌드인 블레저 상품도 소개

○ 말레이시아컨벤션뷰로, 중국 로드쇼 통해 2,777억원 경제효과 기대

- 말레이시아컨벤션뷰로(MyCEB)는 5월 11일부터 19일까지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에서 'MyCEB China Roadshow 2026'를 성공적으로 개최했으며, 각 개최지마다 4만8,000건의 비즈니스 리드를 창출하고 총 7억400만 링깃(약 2,777억원) 규모의 경제 효과를 유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힘
- MyCEB은 이번 행사가 중국의 방대한 비즈니스 이벤트 시장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는 동시에, 말레이시아 방문의혜의 목표를 지원하고 양국 간 교류를 증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발표
- MyCEB에 따르면 비자 편의 확대와 항공 연결성 강화에 힘입어, 2026년 초 기준으로 중국 내 20개 이상의 도시에서 쿠알라룸푸르까지 직항편이 운항되고 있으며, 하루 평균 180편 이상의 항공편이 운영되고 있으며, 쿠알라룸푸르, 페낭, 코타키나발루와 같은 인기 목적지는 중국의 비즈니스 이벤트 및 인센티브 관광 프로그램 참가자들이 선호하는 주요 목적지로 계속 자리매김하고 있음
- 이번 로드쇼에는 말레이시아 비즈니스 이벤트 업계 대표 20명과 중국 바이어 180명이 세 도시에서 한자리에 모여 역동적인 B2B(기업 간 거래) 네트워킹 세션을 진행하였으며, 발표 세션에서는 말레이시아 MICE 상품, 시설 및 서비스의 최신 발전 상황, 비즈니스 이벤트를 대상으로 재정적·비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는 MyTripleE 3.0 MICE 지원 프로그램(MyTripleE 3.0 MICE Support Programme) 소개도 포함

○ 말레이시아 방문의혜 사업 자금조달을 위한 특별 자동차 번호판 출시

- 관광부는 도로교통국과 협업을 통해 말레이시아 방문의혜 캠페인 추가 재원 마련을 위한 특별 차량번호판 시리즈를 출시하였음
- "V1MY"부터 "V9999MY"까지의 특별 번호판을 판매하며, 도로교통국이 6월 13일부터 17일까지 이에 대한 입찰을 진행함
- 한편 관광부는 말레이시아 방문의혜 캠페인에 따른 외국인 관광객 유입이 순조롭게 증가하고 있으며, 올해 5월까지 총 1,750만 명의 관광객이 말레이시아를 방문했다고 밝히면서 4,700만 명의 방문객 유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관광부가 관광청(Tourism Malaysia)을 통해 국내외에서 다양한 홍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고 발표

○ 에어아시아, 중동 갈등 이유로 바레인 취항 연기

- 에어아시아는 당초 6월로 예정되었던 쿠알라룸푸르-바레인-런던 루트 취항을 현지 갈등을 이유로 8~9월로 연기한다고 발표하면서, 영향을 받은 기존 예약 고객들에게는 환불 혹은 예약 변경을 제공하겠다고 함
- 에어아시아는 최근 유가 상승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고 1분기에는 순손실을 기록했으며, 이에 따라 항공편을 감편하고 유류할증료를 도입하는 등 자구책을 도입하고 있음

○ 자격 보유 가이드 없이 여행 상품 운영한 여행사에 벌금 부과 판결

- 관광부는 면허를 보유한 관광 가이드를 동반하지 않고 국내 관광 활동을 운영한 여행사가 법원으로부터 8,000링깃(약 3백만원)의 벌금을 선고받았다고 밝힘
- 관광부는 관광산업법(Tourism Industry Act) 및 관련 하위 규정[Tourism Industry (Tour Operating Business and Travel Agency Business) Regulations 1992]에 따른 위반 행위는 중대한 형사범죄라고 강조하며, 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는 모든 당사자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

○ 주말중국대사, 양국 관계 강화에 따라 말레이시아인의 중국 관광 및 사업이 성장하고 있다고 밝혀

- 주말중국대사는 2025년 시진핑 주석이 말레이시아를 방문, 상호 비자 면제에 합의한 이후 주목할만한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밝힘
- 2025년 말레이시아를 방문한 중국인은 466만명이었고 올해 1분기 중국인 방문객 수는 전년 동기 대비 25.2% 성장하였으며, 2025년 중국 베이징을 방문한 말레이시아인의 수는 약 30만명으로, 전년 대비 43.2% 성장하였음
- 중국 정부는 말레이시아인의 출입국 절차를 간소화하고, 결제 편의성을 높이며(중국과 말레이시아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전자결제 플랫폼은 상호 연동된다고 발표), 세금 환급 서비스를 개선하는 조치들을 시행했으며, 더 많은 말레이시아인들이 직접 중국을 방문해 중국의 자연경관, 문화, 역사 그리고 빠른 발전상을 경험해 보기를 바란다는 입장

○ 말레이시아항공그룹, A350 포함 광폭 항공기 교체 계획 연말까지 확정 예정

- 말레이시아 항공 그룹(MAG)은 말레이시아항공(Malaysia Airlines Bhd)의 에어버스 A350 기종 교체 계획을 포함한 향후 광동체(widebody) 항공기 운용 방안에 대해 올해 말까지 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
 - MAG 사장은 현재 장기 수요 평가중이며, 올해 4분기 안에 검토를 마무리할 예정이나 현재 결정된 것은 없다는 입장
 - MAG의 신규 항공기 도입 프로그램은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으며, 그룹은 올해 보잉 B737 MAX 8과 에어버스 A330neo(New Engine Option)를 포함해 총 11대의 항공기를 인도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이미 A330neo 2대와 B737 MAX 항공기 4대를 인도받았다고 밝히면서, 에어버스와 보잉 모두 항공기 인도 지연 없이 순조롭게 진행중이라고 함
 - 한편 MAG는 현재로서는 화물기 기단 교체 계획은 없으며, LCC 자회사인 Firefly 역시 항공기단 계획에 변동이 없으며 터보프롭 항공기를 교체할 계획도 없다고 함
- **말레이시아항공, 쿠알라룸푸르가 유럽행 환승 경로로 선호되면서 탑승률 호조**
- 말레이시아 항공 그룹(MAG)은 호주와 뉴질랜드에서 유럽으로 향하는 여행객들이 쿠알라룸푸르를 경유하는 수요 증가에 힘입어 유럽 노선의 여객 수요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말레이시아항공의 쿠알라룸푸르-런던 노선 탑승률이 95%를 넘어섰다고 밝힘
 - 이는 3~4월 동안 중동 공항들이 폐쇄되면서 특히 호주와 뉴질랜드에서 유럽으로 가는 승객들이 쿠알라룸푸르를 경유하는 흐름이 크게 늘어난 것에 기인하며,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KLIA)도 이러한 이동 수요를 수용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
 - 말레이시아항공은 증가하는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런던 노선의 추가 항공편도 운항하고 있으나, 현재 히드로공항의 슬롯(slot) 제한으로 인해 정기편을 추가로 투입하는 데는 제약이 있는 상황
 - MAG는 관광객들이 싱가포르나 방콕이 아닌 쿠알라룸푸르를 경유하도록 유도할 수 있는 추가적인 상품을 제공한다고 그 예로 그는 보너스 사이드 트립(Bonus Side Trip) 프로그램을 언급. 이 프로그램은 말레이시아를 경유하는 일정 자격 요건을 충족한 국제선 승객들에게 일부 국내 목적지로 가는 무료 항공편을 제공하는 제도

○ 테마파크협회, 엔터세법 폐지, 업종 재분류 재고 등 정책적 지원 요구

- 말레이시아 테마파크 및 가족관광지 협회(The Malaysian Association of Theme Parks and Family Attractions, MATFA)는 연방정부에 모든 테마파크, 워터파크, 가족형 관광시설 입장권에 최대 25%의 세금을 부과하는 엔터테인먼트세법의 폐지를 요구하면서, 이 법이 시대에 뒤떨어진 규정이며, 가족들이 여가 활동을 즐기는 데 추가적인 부담을 주고 있다고 주장
- 특히 중산층, 저소득층 가족들에게 이러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태국, 싱가포르, 홍콩은 이러한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는 점도 강조
- 또한 슬랑고르 주정부가 어린이 놀이시설(playland)을 엔터테인먼트(오락) 라이선스 범주로 재분류하려는 계획 역시 재검토할 것을 촉구함. 협회는 이 조치가 시행될 경우 연간 라이선스 비용이 현재의 500링깃(약 19만원)에서 거의 13배인 6,390링깃(약 240만원)으로 증가하게 되며, 이는 중저소득층 가정에게 상당한 재정적 부담을 초래할 것이라는 입장
- 협회는 슬랑고르 주정부가 경제 불확실성 속에서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발표한 2억 926만 링깃(약 795억원) 규모의 2단계 경제회복 지원 패키지(Phase Two Endurance Strengthening Package)에 대해서는 환영 입장을 밝히면서, 경기 둔화의 영향을 받고 있는 가족형 관광·레저 산업도 정책 지원 대상에서 소외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

○ 쿠알라룸푸르국제공항 5월 국제선 이용객, 전년 동기 대비 2% 증가

- 쿠알라룸푸르국제공항(KLIA)이 2026년 5월 490만 명의 여객 이동을 기록했으며, 이 중 360만 명은 국제선 승객으로 2025년 5월 대비 2% 증가
- 말레이시아 공항 네트워크 전반에 걸쳐 총 여객 이동량은 해당 월 동안 790만 명에 달했으며, 이는 하이난항공의 충칭-쿠알라룸푸르 직항 취항 등 지속적인 국제 연결성 개선에 따른 것으로 분석됨
- 공항 운영사는 최근 미리 공항과 림방 공항의 체크인 카운터 현대화, 랑카위 국제공항의 공유차량 픽업 구역 확장, 그리고 수방 공항의 화장실 개보수 1단계 완료 등 승객 편의성 개선 역시 마무리 되었다고 밝힘

○ 논란의 워터 뮤직 페스티벌*, 3억 링깃 이상의 경제 효과 창출

- * 올해 4.30.~5.2. 쿠알라룸푸르 번화가인 부킷 빈탕을 비롯해 전국 6개 주에서 “Rain Rave Water Music Festival”이 개최되었으며, 이에 대해 신체 노출 등으로 무슬림 문화

에 부적절하다, 태국 송크란 축제의 모방이다 등의 거센 비판이 있었음

- 관광부장관은 의회 답변에서, 지난 4월말~5월초 말레이시아 방문의해 사업의 일환으로 개최된 워터 뮤직 페스티벌이 41만 5천명의 관광객을 유치하였으며, 쿠알라룸푸르 기준으로 3억 2,043만링깃(약 1,218억원), 6개 주에서 개최된 연계 행사 전체 기준으로는 3억 9,233만 링깃(약 1,491억원)의 경제효과를 가져왔다고 밝힘 (쿠알라룸푸르행사에는 내국인 관광객 15만명, 외국인 관광객 10만명 유치)
- 총 행사비 1,500만 링깃(약 57억원) 중 정부 부담은 1,100만 링깃(약 42억원), 나머지는 민간부문이 지원하였고, 정부 지출 1링깃 당 36링깃의 경제효과 발생
- 또한 행사장에는 63개의 음식 판매 부스, 15개의 수공예품 판매 부스가 설치되었고, 쿠알라룸푸르 행사장 인근의 쇼핑몰들은 해당 기간 방문객수가 30~40% 증가했으며 유통업계에 큰 효과가 있었다고 밝힘
- 41명의 해외 언론 관계자가 행사에 참여했으며, 이를 통해 약 1만 건의 언론 및 디지털 콘텐츠 보도가 생산됐고, 홍보 효과는 약 7,750만 링깃(약 295억원)에 달했으며, 소셜미디어에서는 19억 회의 노출(impressions)을 기록했다고 덧붙임
- 관광부는 종합적인 평가를 거쳐 해당 축제를 연례화할 수 있다는 입장

○ 중동 갈등 완화로 인해 말레이시아 방문의해 2027년까지 연장 시 당초 목표 초과 달성 가능 전망

- 관광청은 미국과 이란 간 휴전으로 국제 정세가 안정세를 보이면서, 방문의해 캠페인을 2027년까지 연장할 경우 말레이시아가 당초 설정한 관광 목표를 초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힘
- 당초 외국인 관광객 4,700만 명 유치와 관광수입 3,290억 링깃(약 12조 5,020억 원)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정부는 7억 링깃 이상(약 2,660억 원)의 예산을 마케팅, 인프라 및 홍보 활동에 투입하고자 했던 방문의해 사업은 중동 갈등으로 인해 위기를 맞았는데, 지정학적 긴장의 완화가 특히 중동 지역의 항공 여행 수요 회복을 뒷받침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

[자료 출처 : 현지 주요 언론 종합]

- 우정국, 말레이시아 방문의해 기념 특별 우표 콜렉션 발행

<https://www.malaymail.com/news/life/2026/06/08/pos-malaysia-launches-vm2026-stamp-collection-highlighting-malaysias-heritage-and-diversity/222975>

- 말레이시아 정부, 관광 비자 이용한 사업 운영 사례에 강력 조치 경고

<https://www.nst.com.my/news/nation/2026/06/1458079/govt-intensifies-crackdown-foreigners-running-businesses-social-visit>

- 쿠알라룸푸르국제공항, 아시아-유럽 연결성 강화로 지역 항공 허브공항 위상 강화 중

<https://www.nst.com.my/business/corporate/2026/06/1458820/klia-expands-asia-europe-links>

- 말레이시아컨벤션뷰로, 중앙아시아 지역 대상 마케팅 행사 개최

<https://theedgemalaysia.com/node/806002>

- 말레이시아컨벤션뷰로, 중국 로드쇼 통해 2,777억원 경제효과 기대

<https://theedgemalaysia.com/node/805797>

- 말레이시아 방문의해 사업 자금조달을 위한 특별 자동차 번호판 출시

<https://www.malaymail.com/news/malaysia/2026/06/10/malaysia-records-175-million-tourist-arrivals-by-may-as-vm2026-campaign-gains-momentum/223282>

- 에어아시아, 중동 갈등 이유로 바레인 취항 연기

<https://www.nst.com.my/business/corporate/2026/06/1460677/airasia-x-postpones-bahrain-flight-route-due-regional-conflict>

- 자격 보유 가이드 없이 여행 상품 운영한 여행사에 벌금 부과 판결

<https://www.nst.com.my/news/nation/2026/06/1461446/tour-company-fined-rm8k-operating-without-licensed-guide-keleantan>

- 주말중국대사, 양국 관계 강화에 따라 말레이시아인의 중국 관광 및 사업이 성장하고 있다고 밝혀

<https://www.thestar.com.my/news/nation/2026/06/17/malaysians-very-welcome-in-china-says-envoy>

- 말레이시아항공그룹, A350 포함 광폭 항공기 교체 계획 연말까지 확정 예정

<https://www.nst.com.my/business/corporate/2026/06/1466975/mag-decide-a350-replacement-plans-year-end>

- 말레이시아항공, 쿠알라룸푸르가 유럽행 환승 경로로 선호되면서 탑승률 호조

<https://www.nst.com.my/business/corporate/2026/06/1466979/mag-sees-stronger-transit-traffic-through-kuala-lumpur>

- 테마파크협회, 엔터테인먼트 폐지, 업종 재분류 재고 등 정책적 지원 요구

<https://www.nst.com.my/news/nation/2026/06/1469075/selangor-move-could-raise-playland-fees-nearly-13-times-says-matfa>

- 쿠알라룸푸르국제공항 5월 국제선 이용객, 전년 동기 대비 2% 증가

<https://www.malaymail.com/news/money/2026/06/19/international-traffic-at-klia-up-2pc-in-may-amid-visit-malaysia-2026-push-says-mahb/224452>

- 논란의 워터 뮤직 페스티벌*, 3억 링깃 이상의 경제 효과 창출

<https://www.nst.com.my/news/nation/2026/06/1470493/controversial-rain-rave-water-music-festival-generated-rm320mil>

<https://www.nst.com.my/news/nation/2026/06/1471319/tiong-water-music-festival-can-go-annual-if-benefits-outweigh-costs>

- 중동 갈등 완화로 인해 말레이시아 방문의해 2027년까지 연장 시 당초 목표 초과 달성 가능 전망

https://www.nst.com.my/business/economy/2026/06/1472642/visit-malaysia-2026-extension-may-lift-tourism-easing-middle-east#google_vignette